

**CEO 동정**

### 철우회 정기총회 참석



강영일 이사장은 4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철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철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CEO 동정**

### 철도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강영일 이사장은 4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티오호텔에서 한국철도협회 회원사와 '철도 투자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CEO 동정**

### 행복주택 가좌주택지구 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4월 25일 경의선 가좌역 인근에 위치한 행복주택 가좌주택지구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공단-수서고속철도(주) MOU 체결 개통 준비 잔 걸음

강영일 이사장은 4월 16일 본사에서 수서고속철도 운영자로 새롭게 출범한 수서고속철도(주)(대표이사 김복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서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고품질의 철도차량과 시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공단은 편안한 승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좌석의 무릎공간을 확대하고 LED 조광등 및 전 좌석 모바일용 콘센트 설치 등 차량을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차내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개선에 힘 쓰기로 합의했다.

개통 전 철도안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 시에도 양 기관이 협동으로 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여 차질이 없는 영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수서고속철도(주)는 개통 6개월 전까지 공단과 선로사용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협의회를 열어 수서고속철도(주)가 KORAIL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오송~목포 등 일부 구간의 선로용량 배분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고속철도(주) 2014년 4월 16일(수)

### 필리핀 경전철 토목 설계 · 감리 63억원 계약 체결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래)는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와 4월 14일 약 63억원 규모의 필리핀 마닐라 경전철 2호선 동부연장선 토목 설계 및 시공감리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21일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과업수행에 착수했다.

본 계약은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시 동부지역 수송난도 증대를 위해 2003년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14km의 경전철 2호선 중점인 신도안에서 마시낙간 4.2km의 연장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 및 시공감리 과업이다.

공단은 컨소시엄사인 (주)수생엔지니어링 및 필리핀 현지업체와 토목설계 및 시공 발주 준비 업무를 시작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포함, 총 3년간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공단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의 국가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ODA)자금을 활용하여 관련국 철도계획 수립 및 교통관계자의 초청연수사업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동남아 지역에서의 해외사업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필리핀사업은 동남아 국가의 발주처 재원으로 국제경쟁을 통해 수주에 이르게 된 최초의 사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연결철도, 태국 고속철도 등과 같은 대규모 철도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지역에 한국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LRT-2호선 사업 노선현황〉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위해 철도 전담조직 운영

- 공단 주도적 역할 기대 -

기획혁신본부는 G20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선언한 '남북 공동운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남북 및 대륙철도사업을 전담하는 '유라시아 철도추진단(T/F)'을 운영한다.

유라시아 철도추진단(T/F)은 단장(기획혁신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부서 및 건설·재무·열차운영 등 4개 지원팀으로 구성해, 민간·학계·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단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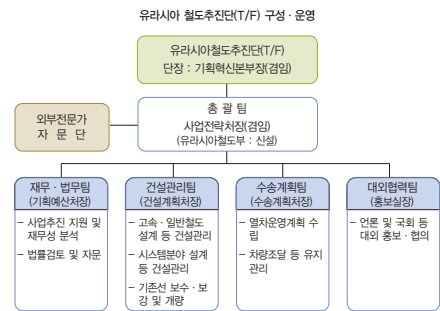
또 유라시아철도 추진전략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한반도 철도(KR)와 대륙철도(TSR, TCR 등) 연계운행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추진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팀은 인프라 구축 등 계획 수립, 재무·법무팀은 재무성분석 및 법률검토 등·자문, 건설관리팀은 고속·일반철도 건설관리 및 기존선 개보수, 수송계획팀은 열차운영계획 수립 및 차량조달, 대외협력팀은 언론 및 국회 등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그간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사업은 '5.24 남북제재 조치' 등 복합적인 국내외 정치 여건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이 어려웠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철도특성상 민간의 협력으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해 공단은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철도 협력관계를 적극 지원하고, 북한철도의 현대화 및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게 됐다.

유라시아 철도 추진단 구성으로, 이미 지난 3월 유라시아 국가 철도운송 협의회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제후회원으로 가입한 코레일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조기에 실현하고, 기존의 남북경협과 유라시아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철도추진단(T/F) 구성 · 운영

- 단장 : 기획혁신본부장(겸임)
- 총괄팀 : 사업전략차장(겸임) (유라시아철도부 : 신설)
- 외부전문가 자문단
- 재무·법무팀 (기획예산차장)
  - 사업추진 지원 및 재무성 분석
  - 법률검토 및 자문
- 건설관리팀 (건설계획차장)
  - 고속·일반철도 설계 등 건설관리
  - 시스템분야 설계 등 건설관리
  - 기존선 보수·보강 및 개량
- 수송계획팀 (수송계획차장)
  - 열차운영계획 수립
  - 차량조달 등 유지관리
- 대외협력팀 (홍보실장)
  - 언론 및 국회 등 대외 홍보·협외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남북·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발전 전망 등 주제발표 -

기획혁신본부는 4월 23일 정부·민간·학계·연구원에서 한반도를 진정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국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효율적인 유라시아철도 연계발안 차리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철도부문에 대한 실행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남·북한 및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철도건설 전문가연대회의 '남북·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발전전략'과 상보기출산 신동원 부사장의 '북한철도 개량 및 현대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9명과 공단 내부 전문가 7명이 패널로 나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유라시아 철도연계 운영을 위한 선 단계, 중기, 중장기로 접근할 수 로드맵 마련, ▲북한철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사, ▲수송수요, 설문조사 등 경제성을 고려한 액션플랜 수립, ▲다년간 협력 모델 체계 구축, ▲남북한 철도 용어 차이 극복 방안인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영일 이사장은 "현재 법 정부차원에서 한반도를 진정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철도부문에 대한 실행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남·북한 및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철도건설 전문가연대회의 '남북·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발전전략'과 상보기출산 신동원 부사장의 '북한철도 개량 및 현대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9명과 공단 내부 전문가 7명이 패널로 나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